

# 군산개복동화재참사현장을 여성인권 기억공간으로!

## 1. 군산개복동 기억/기록 공간마련의 필요성

2000년 군산대명동, 2002년 군산개복동화재참사로 인한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2004년 성매매관련법이 제정되어 우리사회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진정으로 민주적인 탈성매매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한걸음 전진되는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 나갔다.

한국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에 전시성노예제 문제를 알려나가고 있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시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쟁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박물관이다. 나아가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알리고, '여성, 인권, 평화'를 향한 현재의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전하는 교육공간이다. 초국적 시민 연대의 통로, 미래세대 교육의 장, 기억과 기록의 국제 플랫폼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군산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은 '안전성 진단'과 이후 '여성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행정을 믿고 건물을 철거한 이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등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평화/인권활동가들이 한국의 활동가/ 당사자들과 연대하고 결의를 다지는 현장이 방치되어 있음에 다들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분노하고 있다.

전국의 여성/인권활동가와 시민, 전세계에서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성착취/인신매매반대를 목소리 높여 외치는 공감과 연대의 장,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성평등한 교육의 장, 기억과 기록의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군산개복동에 '여성/인권 미래/성평등센터'가 건립추진되어야 한다.

현장이 역사이고 역사를 잇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참고

### 1. 군산개복동기억공간추진위원회 경과 및 추진활동

○2000년 9월 19일 군산시대명동화재, 성매매여성5명 감금된 채 사망

-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대가, 아방궁’ 화재, 14명의 여성 사망
- 매년, 1월과 9월에 추모행사를 진행해 옴
-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 제정
- 2005년 전북여성인권센터 주최의‘민들레순례단’ 활동
- 2006년 ~ 9월 군산 개복동과 대명동 화재참사 지역 순례하는 ‘민들레순례단’ 순례 및 추모행사
- 2013년 2월 25일 개복동성매매업소 화재건물 철거에 대응하여 추모제 진행
- 2013년 3월 군산시에 의해 건물 완전 철거
- 2013년 4월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 건물을 여성인권과 교육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군산개복동여성인권센터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및 기자회견
- 2013년 5월 군산시장 면담
- 2013년 6월 군산시 주최 개복동 화재 공간 향후 방안에 대한 간담회 참석
- 2013년 6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면담
- 2013년 7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관람
- 2013년 9월 군산개복동여성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민들레순례단  
김관영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및 전라북도 국회의원 면담
- 2013년 10월 군산개복동여성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015년 5월 ‘개복동 2002 기억. 나비자리’ 조형물(개복동 화재 추모 상징 조형물) 제작 및 군산산  
돌갤러리 전시 시작
- 2016년 9월 ‘개복동2002 기억’ 전시, 군산개복동기억공간추진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17년 9월 ‘개복동 2002 기억’ 두 번째 전시
- 2018년 9월 민들레순례단 및 ‘개복동 2002 기억’ 세번째 전시
- 2019년 9월 민들레순례단 및 ‘개복동 2002 기억. 기록전시 그후 17년을 잇다’ 개최

## 2. 군산시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전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2014년부터 전주시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와 함께 선미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정책으로 문화재생 방식을 도입하였고 업소 5곳을 매입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공공시설( 업사이클센터, 예술가운영독립서점, 복합문화공간, 선미촌 기억공간,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플랫폼/선미촌아카이브전시관 등)로 활용하고 있음. 선미촌 일대를 ‘여성인권과 예술의 거리’로 문화재생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하기 위한 모델링이 되어 각 지자체, 의회, 시민단체, 도시재생 관련 단체 등의 방문이 이어져 옴 (2014년부터 140여회 2,500여명)
- 충남 아산시는 성매매집결지 장미마을을 일대를 매입하여 여성친화형 문화재생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국토교통부의 뉴딜사업으로 채택되어 여성친화공간으로 조성 중
- 2013년 개복동 화재 건물이 철거되고 잔디밭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잡풀

이 우거져 있으면서 방치 된 상태임

- 2006년 민들레순례단의 시작과 함께 매년 전국의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 해외단체나 개인들의 개복동 화재 장소 방문이 이어지고 있음. 개복동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개복동 화재참사 장소는 여성인권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음.
- 화재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담아 치유와 회복, 여성인권과 시민교육의 거점/상징공간이 되는 기억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개복동 여성인권센터 (가) 건립 제안
  - ▶ 위치 : 개복동성매매화재참사지역(군산시 개복동 17, 17-1)
  - ▶ 규모 : 363㎡(110평) (개복동 전시관66㎡, 교육실132㎡, 사무실66㎡, 세미나실 66㎡, 야외공간 33㎡등)
  - ▶ 공간구성 : 개복동성매매화재참사 관련 자료전시 및 추모공간, 여성인권 교육장, 운영 공간, 지역사회 공유 공간

#### 참조 사례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서울시 소재)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시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쟁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박물관으로 초국적 시민 연대의 통로, 미래세대 교육의 장, 기억과 기록의 국제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소개글 중)

#### 〈요청사항〉

2014년 6.4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개복동여성인권센터건립 정책질의를 통해 답변을 공개 하기도 했다. 당시 군산시장, 군산시의원 입후보자들에게 군산개복동인권센터 건립 의사와 예산조성을 위해 지방정부예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할 의사를 확인하였다. 질의결과, 총 48명의 입후보자 중 5명의 후보자가 답을 했으며, 43명은 무응답 하였다. 답변 결과 전원이 건립추진에 찬성하였고, 예산확보에 공동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행동과 후속과정이 없이 방치되어있다. 군산개복동 화재참사의 역사는 단순히 군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지구적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연대하는 장이므로 전라북도가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도지사후보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여성인권의 기억과 기록,가치보존등의 관점을 가지고 추진에 대한 답변과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